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의상 비교 분석 연구

김 현 정* · 양 취 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Movie Costume for the 'Dangerous Liaison,' and 'The Scandal'

Hyun-Jung Kim* · Chieu-Kyung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5. 1. 14 투고)

ABSTRACT

In this thesis, I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worn by leading figures of French movie "Dangerous Liaison" and Korean movie "The Scandal".

I compared the costumes they wear with the costumes of 18th century France and also tried to analyze how the costumes represent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persons in the movie.

Since these two movies are based on the same original novel, the major figure's character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ituations they faced are similar but the physical background are very different, that is France and Korea.

The analysis of the costume worn by similar characters in the two movies show differences due to the intention of the producers.

The costumes used in Scandal shows much more use of varied colors to represent the characters of the major roles while Dangerous Liaison more faithfully follows the evidences of the costume used in the period in France.

As seen from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e can deduce that the costumes used in the movie not only have the simple role of clothes but also it forms the image of the figure in the movie representing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person who wears them.

Because of these demands, the designer should posses profound knowledge of history of the costumes of the period as well as the creativity to harmonize them with the atmosphere that the movie intend to appeal.

Key words: "Dangerous Liaison" costume(위험한 관계 영화 의상), the scandal costume(스캔들 영화 의상), movie costume(영화 의상)

I. 서론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매체로 시각적·청각적 요소를 모두 갖춘 영화를 꼽을 수 있다. 영화는 다른 다양한 예술 중에서 인간과 가장 친근하고 흥미로운 예술로서 관객의 시청각을 통해 현실을 재생시켜 직접적인 감동을 주는 시간과 공간의 예술로써¹⁾, 영화의 비중이 커진 오늘날 그 어떤 예술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는 모든 것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세분적인 영역까지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시각적인 표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요구하는 현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영화는 이 같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영화의상은 크게 부각되는 부분으로, 극 중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심리 등의 극중 이미지 전달, 극의 주제와 분위기 표현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1988년에 제작된 스테판 프리어즈 (Stephen Frears)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위험한 관계」와 2003년에 제작된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 - 조선 남녀상열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8세기라는 같은 시대, 다른 공간적 배경으로 동일한 성격의 등장인물에 대한 영화의상의 표현을 두 영화는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설정의 영화의 등장인물에 따른 의상표현을 살펴보고, 시대극의 의상표현에 있어 복식사적 표현방법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영화의상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영화의상 목적의 의미와 기능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두 영화에서 의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의상을 분석하겠다. 또한 복식의 고증을 통해 영화의상과 동시대의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등장인물의 의상과 그 시대의 문화, 예술, 복식을 비교 분석할 것이며, 두 영화에 등장하는 동일한 등장인물들의 영화의상을 같은 상황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영화의상의 의미와 기능

1. 영화의상의 의미와 기능

영화의상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며,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의상의 단순한 기능 외에도 하나의 표현적인 구실을 하기에 이르며 연기에 기여하는 중요한 독립적 분야이다.²⁾

따라서 의상은 시각적으로 배우와 단일 이미지를 형성하여 관객에게 그 영화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물의 성격, 개성, 사회계층 등을 물론 영화의 주제나 형식까지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영화 속 의상은 극중 인물 성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극적 전개를 돋는 수단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배우로 하여금 그 역할과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여 인물의 성격과 개성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극중 인물을 설정하고,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영화는 실제적인 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으로 영화의상은 시공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위한 움직이는 세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들의 모방심리를 이용하여 패션 창조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화의상이 유행을 창조하며 여배우들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이 패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 가자 메이저 영화사들은 점차 이 같은 복장부문에 최근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쏟기 시작했으며³⁾. 이러한 상황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영화의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의상은 시대극·희극·뮤지컬·SF 등 영화 장르에 따라 분류되며, 이 분류에 의해 고증에 충실해야 할지, 자유로운 표현을 할지 혹은 예술적 심미성에 치중하는지 등의 다른 특징을 가진다.

III. 영화 「위험한 관계(Dangerous Liaisons)」작품 내용 및 의상분석

I. 18세기 프랑스의 시대적 배경 및 복식사의 변화

18세기의 프랑스는 화려한 장식과 여성적인 우아함을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로코코 시대(ro-coco)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프랑스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루이 14세 때의 성직계급의 호화로운 생활과 밀기 때의 영·러 전쟁의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로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루이 15·16세의 집권과 궁중의 화려한 생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의 사치,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등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켜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⁴⁾.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치 참여를 바라는 부르조아(bourgeois) 계급의 불만을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⁵⁾ 중상주의로 부유하게 된 부르조아는 귀족계급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사상적으로 18세기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계급으로 성장한 상태였다.

18세기 프랑스의 특징적인 문화양식으로 살롱(salon)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살롱을 통해 당시의 프랑스 문화의 전파와 탄생, 사상의 발전이 여기서 비롯되었으며,⁶⁾ 로코코 양식은 살롱의 인테리어나 예술적 장식에서 시작하여 의상에 미치기 까지 하나의 예술 양식으로 표현되어 발전되었다.

이러한 18세기 유럽에서의 미(美)의 형태는 향락과 세련됨을 지향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복식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고 화려했으며 자유분방했으며 특히 여자들에게는 아름다움만이 강조되고 자극적이고 에로틱한 아름다움만이 요구되고 찬미되었다.⁷⁾ 이러한 미의 요구는 당시 유행에 있어 선두에 있던 프랑스가 주도하였다. 당시의 프랑스는 전 유럽에 있어 예술적면, 복식적면에 있어 선두적인 입장으로 18세기 의상은 어디서나 프랑스 모드를 따랐으며 베르사유 궁정에 등장한 유행은

곧 유럽으로 퍼져나가 로코코 복식의 디자인, 유행, 전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영국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이러한 사치스러운 복식의 등장 및 전파를 도왔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기관 방적기계 등이 발명되고 이로 인해 수공업과 가내공업을 기계화된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발전하여 특히 직물 산업에 있어서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733년 존 카이(John Kay)에 의한 직조기 개량으로 기존의 직물보다 두 배로 넓은 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1764년 제임스 하이그레이브(James Hargreaves)의 방적기와 1769년 리차드 아크赖트(Richard Arkwright)의 면화 방적기와 1785년 에드먼드 카트赖트(Edmon Cartwright)의 역직기로 종전의 생산량의 100배의 증가량을 보였다.⁸⁾ 이러한 기계공업과 발달과⁹⁾ 직물 공업의 발전으로 경제력이 성장한 부르조아는 사회적 지위 향상에의 의지로 인해 귀족적 취향의 화려한 복식의 실제 소비자층이 되기도 하였다¹⁰⁾.

인도로부터 값싼 면직물의 수입으로 발전된 영국의 면직물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세계시장을 석권 하였으나¹¹⁾ 견직물 제조에는 외국의 발명품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동안 프랑스의 견직물은 더욱 발전하였고,¹²⁾ 나염법이 용이해지면서 아름다운 면직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상류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급되었다. 18세기에는 중동과 아시아의 교역으로 직물 수입을 해오고 동양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동방풍이 새로운 취향으로 유행되어 복식뿐 아니라 미술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중국적 주제를 가지고 중국풍의 꽃무늬 인물, 풍경 등이 표현되는데 이러한 중국취미를 시노와즈리(Chinoiserie)라 하였다. 특히 중국 실크문양의 묘사법을 진기한 이국풍으로 여겨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로코코 패션의 특징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색에 있어 18세기 초 뉴튼(Issac Newton)이 빛의 3원색을 알아내고 다시 마이어(Johann Tobias Mayer)가 이를 혼합하는 원칙을 세워,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91가지 명암과 9,381가지의 색상을 얻었다.¹³⁾ 이러한 과학적 색채 감각으로 인해 18

세기의 직물에 있어 색채의 조화는 상당히 세련되어졌으며, 강한 색채의 배합을 피하고 실크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를 나타내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발전과 동양의 교류는 면직물 생산의 증대와 저렴한 가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신분차이를 없애주면서 프랑스의 부르조아 사회에서 환영받았으며, 직물공업으로 인한 경제력 상승으로 귀족적 취향의 부활과 함께 귀족뿐 아니라 부르조아의 호화스러운 복식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2. 18세기의 프랑스 복식

18세기의 프랑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궁전과 귀족계급의 패락추구의 성향은 복식을 더욱 화려하고 우아하게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련된 감각을 중요시하여, 의상 뿐 아니라 장신구, 화장, 머리형, 품짓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들이고 열중하였다.¹⁴⁾ 로코코 복식은 루이 15세 친정기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여자 복식은 가는 허리와 파니에를 이용하여 부풀린 스커트의 형태와 얇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 로카이유 장식문양¹⁵⁾ · 꽃무늬 · 시노와즈리 문양 등의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들의 얇은 고급스러운 직물이 선호되었다.¹⁶⁾ 여자 복식이 다양하게 나와 그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 로브 와토가 발전한 형태이자 루이 15, 16세 때 크게 유행하고 널리 입혀진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는 로코코 복식 중 가장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18세기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로브이다. 폴란드의 민속복에서 힌트를 얻어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¹⁷⁾ 로브 아 라 폴로네이즈(robe à la polonaise)는 1770년대 이후에 유행하여 1785년까지 그 절정을 이루었다. 로브 아 라 씨르까씨엔느(robe à la circassienne)는 이 로브의 길이가 발목까지 짧아져 변형된 형태이다. 영국부인들의 승마복에서 유래된 로브 아 라 까라코(robe à la caraco)¹⁸⁾는 투피스 형태로 1780년대에 상류계급 부인들 사이에 유행되었고 1790년대까지 입혀졌다. 원래 영국에서 시민 계급사이에서 생긴 실용형 의상으로,¹⁹⁾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자켓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 외의

로브로는 로브 아 랑글레에즈(robe à l'anglaise), 르탱고뜨 가운(redingote gown) 등이 있다.

여자 두식으로 18세기 초에는 17세기의 풍랑쥬(fontange)가 유행되었으나 루이 14세 이후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긴 우아하고 깔끔한 머리형으로 머리 위에 조화나 리본(ribbon), 레이스(lace), 레이스로 만든 작은 란제리 캡(cap) 등의 장식을 한 풍파두르 (Pompadour) 형이 유행하게 되었다.

남자 복식으로 대표적인 쥐스또꼬르는 처음에는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으나 점차 대중화 되었고²⁰⁾ 형태는 같으나 실크나 벨벳을 사용하여 보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française)라고 하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식복으로 착용하였다.²¹⁾ 1730년경 이후 영국 군복의 영향으로 유행되기 시작한 프록(frock)은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기에 널리 입혀졌으며²²⁾ 1730년대 이후 신사들이 말을 탈 때나 평상시에 편안한 의복으로 입기 시작해 1770년부터는 평상시의복으로 대중화되었다. 1780년대의 르탱고뜨(redingote)²³⁾는 영국에서 처음 입기 시작한 승마용 코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레이트 코트(great coat)라고도 한다. 조끼는 베스트(veste)와 질례(gilet)로 나눌 수 있으며. 베스트는 바로크 시대의 상의로 착용했던 푸르푸앵(pourpoint)²⁴⁾이 쥐스또꼬르 속에 입혀지면서 실내복으로 변한 것으로 외출 시 겉에 쥐스또꼬르나 프락을 착용하였다.²⁵⁾ 17세기부터 18세기중반까지의 목장식은 매어온 크라바트(Cravatte)나 슈타인커크가 주류를 이루었다. 늘어뜨린 레이스가 특징인 자보(Jabot)는 18세기 남자복식에서 로코코 스타일의 특징을 나타내는 품목으로 후에 넥타이의 근원이 된다. 18세기 남자바지(breeches)는 무릎 바로 아래 길이이고 바지통이 꼭 끼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로 갈수록 더욱 통이 좁아지고 말기에는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바지가 유행되었다.

18세기 남자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가발의 변화로서 나이 · 직업 · 복장에 따라 가발이 매우 다양해졌다. 그 종류로 머리를 뒤 중심에서 모아 리본으로 묶고 리본의 나머지 부분을 앞

목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킨 카도간 위그(cadogan wig), 땅은 머리를 크라포우(crapau)란 검은색 네모난 주머니에 넣고 뒷목에서 검은색 리본으로 나비처럼 묶어주는 백 위그(bag wig)는 등이 있으며, 가발의 색은 흰색·회색·검은색·갈색·연한 황갈색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포마드를 바르고, 회색이나 흰색의 가루를 뿐렸다.²⁶⁾ 남자모자는 트리콘(tricorn hat : 세모서리 모자)이 1780년대까지 유행하였고, 크라운이 높고 챙이 넓었던 것이 점차 크기가 축소되어 겨드랑이에 끼는 장식용으로 쓰였다.

3. 영화 「위험한 관계」의 작품 해설 및 의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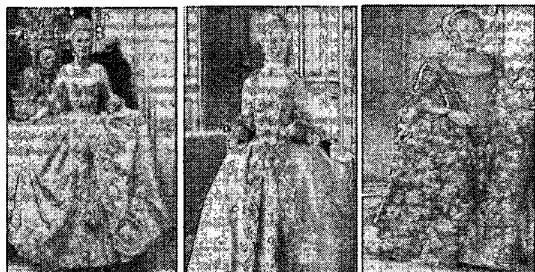
원작 라끌로스(Laclos)의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는 18세기 프랑스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175통의 편지를 엮어서 만든 1782년에 만들어진 서간소설로 당시 유행하던 감상적·교훈적인 연애담과는 반대로, 프랑스 혁명 전의 문란하고 퇴폐적인 상류사회를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여 날카롭게 분석한 작품이다.

이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만든 영화 「위험한 관계」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전야의 파리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원작과 같은 내용과 구성을 이룬다. 주인공인 메르테이유와 발몽, 투르베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은 다음 〈표 1〉과 같다.

등장인물에 따른 의상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메르테이유 부인은 우아하면서도 강한 성격을 가졌기에 영화상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보다 화려한 장식

과 소재, 장신구를 이용하였다. 의상에 맞추어 소품을 착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귀족적이면서도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된 인물이다. 로코코 의상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도도한 오만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강하고 선명한 색과 함께 로코코 시대에 유행했던 파스텔 계열의 색 또한 사용하여 사교계의 패션 리더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1〉 살구색 〈그림 2〉 주황색 〈그림 3〉 빨강색
로브 아라 프랑세즈 로브 아라 프랑세즈 로브 아라 프랑세즈

〈그림 1〉의 살구색(peach)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는 백작부인으로 로씨의 우아함과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로브로, 블랑슈 부인과 세실에게 다정하고 품위있는 모습을 인식시켜주기에 알맞은 의상이다. 당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브로케이드된 실크제질로 사용함으로써 귀족적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림 2〉의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색상인 파스텔 계열의 가라앉은 주황빛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는 짙은 붉은 빛이 도는 다흥빛 언더 드레스와 오버드레스에 장식된 주름잡힌 띠의 가장자리의 붉은 색으로 또렷한 인상을 주며, 로코코 시대의 리본장

〈표 1〉 위험한 관계의 등장인물의 성격분석

등장인물	성별	나이구분	사회적 지위	성격	
				직업	성격 특징
Merteuil	여	30대 중반	백작부인으로 계급에 속한다	외적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교계의 여왕인 동시에 내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다. 간교하고 남자를 지배하려는 승부욕이 강한 인물	
Valmont	남	20대 후반	자작으로 귀족계급 에 속한다	사교계의 바람둥이로 잔인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 교활하고 야비한 면모를 지님	
Touvel	여	22살	법원장 부인으로 귀 족계급에 속한다	신앙심이 강하고 정숙함과 도덕심을 삶의 신조로 하는 깨끗한 성격의 소유자	

식으로 미적 조화를 보여준다. 이 같은 은은한 색의 착용은 메르테이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블랑슈 부인과 당스니를 거부감 없이 속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3〉의 로브는 투르베 부인의 유혹에 성공한 발몽 자작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서 입고 나온 로브 아라 프랑세즈이다. 선명한 붉은색에 옅은 황금빛으로 꽃문양을 브로케이드하여 화려하다. 카키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특히 스커트의 아랫부분에 로코코의 나선형 및 물결무늬의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몽이 투르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질투에 휩싸이는 심리가 옷의 붉은색으로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장식에 있어서도 갑작스런 감정의 급변화가 다른 의상에 비해 크게 장식된 로카이유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헤어 스타일로는 18세기 유행한 전형적인 풍파두르 스타일로 앞머리를 가볍게 뒤로 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뒷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당시 귀족들의 에티켓으로써 공식에 나갈 때에는 머리에 흰 가루를 뿐렸다. 의상에 따라 진주줄, 조화, 레이스, 리본, 보석 등으로 장식하였다.

신앙심이 강하고 정숙함과 도덕심을 삶의 신조로 하는 투르베 부인은 메르테이유 부인과는 대조적으로 은은한 파스텔 톤의 색감과 잔잔한 꽃무늬를 사용한 로브 아라 프랑세즈, 로브 아라 까라코, 로브 아라 랑글라아제를 통해 그녀의 따뜻하고 조용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신앙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십자가 목걸이를 장신구로 사용하였으며,

정숙하고 조용한 이미지는 깊게 파인 목둘레선에 항상 핏슈를 착용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투르베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을 잘 나타내는 로브로는 옅은 아이보리(ivory)색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를 들 수 있는데, 무늬가 다른 직물로 두번 나온다. 그 중 발몽에게 유혹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직선의 격자무늬의 아이보리색 로브는 다소 고지식하고 단호한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과 이미지가 잘 부합된다(그림 4). 옅은 색감이 조용하고 정숙한 투르베의 품성과 잘 어울리며, 곧은 성격을 반영하듯 로코코 특유의 화려한 로카이유 무늬보다는 잔잔한 꽃무늬와 직선이 많이 나타난다. 광택이 많이 나는 실크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실크와 면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림 5〉의 옅은 주황색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는 발몽으로부터 처음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와 더 농밀한 유혹을 받아 마음이 혼들리는 장면에서 입고 나온다. 사랑의 고백으로 마음이 혼들리는 심리를 표현하듯 은은한 옅은 주황색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집 안에서 활동하거나 산책을 할 때 입고 나온 하늘색 상의와 갈색 스커트의 까라코는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투르베에게 활동적인 이미지를 잘 나타내준다. 영화 속에서 메르테이유가 입고 나오는 까라코와 같은 종류지만, 〈그림 6〉과 같이 소박하면서 활달한 이미지로, 땅에 끌리지 않는 길이의 스커트는 산책하기에 알맞은 길이이다.

후드 달린 하늘색 까라코는 〈그림 7〉처럼 투르베의 눈동자와 동색인 하늘색에 흰 스프라이트가 쳐



〈그림 4〉 아이보리
로브 아라 프랑세즈



〈그림 5〉 주황색
로브 아라 프랑세즈



〈그림 6〉 까라코



〈그림 7〉 후드 달린
까라코

진 면직물로 투르베의 단정한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매우 크고 긴 폐플럼을 달고 있으며, 커다란 후드와 1780년대에 보여진 긴 타이트 소매에 속목에 프릴이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의상에 달려있는 후드는 발몽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얼굴을 가리는 효과와 함께, 앙가장이 달린 철부 길이의 소매와 함께 긴 타이트 소매로 몸을 모두 감싸고 있어 감추듯 밀회하는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주로 가정적이고 정숙한 이미지에 어울리게 단순한 풍파두르형으로 머리를 뒤틀어 올린 후 그 위에 머리카락을 덮는 레이스와 하얀 면으로 만든 캡을 쓰고 나온다. 그 외 저녁 모임에서 은색 로브에 맞춰 올린 머리를 진주줄로 장식하기도 하며, 작은 조화로 꾸민 모자를 쓰고 나온다.

장신구에 있어 소박한 성격에 어울리게 진주가 달린 작은 크기의 금 귀걸이를 주로 하는 등 투르베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동시에 인물의 성격과 심리변화를 나타내주는 소품으로 이용된다. 즉 항상 차고 나오는 십자가 목걸이는 투르베의 정숙함과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지만, 자신의 신념과 굳은 의지를 버리고 발몽과의 사랑에 빠지는 심리적 변화를 목걸이의 미착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교계의 바람둥이며 상류계층인 발몽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아비 아 라 프랑세즈를 주로 입고 나오며, 그 외 르뎅고뜨와 프락을 입고 인조보석과 자수를 주요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복장에서 치밀하고도 야비한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장식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느낌을 주며, 세련된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에서 보여지는 파스텔 색조의 회색의 벨벳 아비 아 라 프랑세즈는 화려한 장식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의상임에도 불구하고 발몽 특유의 예리한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화려한 자수장식, 소매의 레이스 장식, 화려한 자수의 베스트와 섬세한 레이스 자보는 당시의 상류계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호화롭지만 동시에 발몽의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또한 회색은



〈그림 8〉 회색 벨벳 〈그림 9〉 주황색 아비 아라 프랑세즈 〈그림 10〉 회색 프락

색채학에 있어서 잔혹하고, 감정이 없는 의미를 가지는데²⁷⁾. 이런 의미에서는 잔혹하고 야비한 면을 가진 발몽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의상은 메르테이유와 함께 나오는데, 메르테이유의 주황색, 청색, 붉은색 로브와 잘 조화를 이룬다.

〈그림 9〉는 로코코의 대표적인 파스텔 색조를 잘 보여주는 주황색 실크로 만든 아비 아 라 프랑세즈로 투르베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과 메르테이유와 계획을 짜는 장면에서 입고 나온다. 밝은 주황색은 사교적인 색에 속하며, 동시에 자유분방한 색으로써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색으로²⁸⁾ 투르베에게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발몽의 심리를 잘 나타나는 색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할 때나 평상시에 편안한 의복으로 입던 프락은 투르베와 산책하면 입고 나오는데, 격자무늬의 회색은 발몽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투르베에게 수수하면서도 겸손한 느낌으로 다가가기에 알맞은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옅은 살구색의 베스트나 흰색의 베스트를 입음으로써 깔끔한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그림 10).

헤어 스타일은 깔끔한 백 위그와 카도간 위그를 하고 나오는데, 발몽의 사악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잘 부각시켜준다. 당시 상류계층에서 에티켓으로서 쓰여지며, 크게 유행이 한 가루를 가발에 뿐리고 나오거나, 검정색의 머리 그대로 나와 의상과 잘 조화를 이루며, 잔혹하고 예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모자로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모자인 트리콘 햇을 쓰고 나오며, 뒷굽이 붉은 색인 버클달린 구두와 죠커부츠를 신고 나와. 당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표

현하였다. 그 외 남자들의 장신구였던 지팡이와 장갑을 가지고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V.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작품 내용 및 의상분석

1. 18세기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 및 복식사 변화

18세기 조선은 외부에 의한 전쟁은 없었으나 숙종(肅宗)대의 극심한 당쟁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하류층의 경제적 성장은 신분제의 변화와 문화적으로 서민위주의 예술이 발달하는 시기였다.

18세기 조선을 이룬 영·정조 시대의 사회구조는 철저한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조선후기 양난 이후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었다. 신분질서의 해체의 양상은 신분적으로 양반이나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서민화 되어 가는 하향적 신분이동과 신분적으로는 상민, 노비에 속하지만 경제적 부를 이용하여 양반신분으로 상승해가는 상향적 신분이동의 두 가지로 되었다.

영·정조시대의 조세제도 개편과 도성 정비사업은 상업에 있어서 사상(私商)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촉진시켜 화폐제, 유통경제가 발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통제하던 상업체제가 무너지고 도매상인 충이 형성되었다.²⁹⁾

조선시대 통치이념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6세기를 고비로 나타난 성리학의 모순들의 개선 개혁을 꾀하는 의지에서 17세기부터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조선후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실학은 종래의 성리학에서 벗어나 개성적, 독자적 국가로의 민족적 자각을 이끌었고,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를 근대의 방향으로 변혁하려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일기 시작하였던 민족적 자아의식의 태동을 발전한 실학사상, 서민 계급의 지위향상, 서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문학, 미술 등 예술분야에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서민경제의 성장은 서민층의 계급적 신분상승을 초래하였고 대중의 의식 또한 높아져 지금까지 사대부들의 독점으로만 여겨왔던 회화세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회화가 조선후기 대중 예술로 꽂피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조선시대는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그中最 가장 주요한 변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평민들은 상류계층의 복식 사치를 모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 문예부흥기인 영조·정조 때 정점을 이루었으며, 전통 한복 양식의 성립기라 할 수 있다.³⁰⁾

조선 후기 복식의 미적 특징은 유교적 미의식과 관련 있었다. 미적인 가치를 문양과 직물의 화려함, 장식성에 두지 않고, 복식의 구조와 선에 두었다. 형태의 단순함과 직물의 색, 문양의 평면성은 의복 자체를 통해서 장식욕구가 많이 수용되지 못하는 반면, 두식에 치중되었다.³¹⁾ 가체장식은 장식의 욕구와 유교규범 사이의 갈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기존관념인 유교관념의 약화와 신분제의 변화로 간소화된 저고리에 부풀린 치마, 치마 아래로 보여지는 속바지 등의 애로티시즘적인 복식이 조선후기의 회화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성리학에서 벗어나 현실을 탐구하고자 한 실학사상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생활을 하도록 주장하였고, 과학적인 의생활을 주장하였다. 복식을 유교적인 명분보다는 실용적, 합리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실학의 발전으로 신분제의 변화와 함께 경제력을 획득한 서민계층의 복식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³²⁾ 한편 실학자들은 복식의 비실용적인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복식의 허세와 낭비는 갑오개혁 때 복식개혁으로 쟁점에 오르기도 했다.³³⁾

여자 복식의 경우 유교적 복식 이념에 따라 정숙함에서 짧은 길이의 저고리, 부풀은 치마로 은근히 몸을 노출하는 요염한 형태로 변화되었다.³⁴⁾ 신분상 하층에 해당되나 복식에 있어서는 상류층에 버금가는 생활을 했던 기녀들의 복식을 상류층에서 모방

하여 착용하게 되었다.³⁵⁾

조선시대의 복식에 관련된 금제로는 신분계급 상징과 사치금지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조선초 기엔 복식의 색·문양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반면, 조선 후기에는 가체를 중심으로 수식을 포함한 장신구·의복의 형태·소재 등에 대한 금지가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사치풍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⁶⁾

2. 18세기 조선시대 복식

조선 후기의 여자 복식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가 매우 풍성해진 것으로, 이는 당시 복식에 있어 유행의 선두에 서있던 기녀들의 복장을 따라하는데서 더 심화되었다.

저고리에 있어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길이가 매우 짧아져, 가리개용 허리띠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상체의 봄 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치마허리가 노출되었다.

예복으로 원삼(圓衫)이 있는데 이는 원래 궁중에서 비빈들과 공주·옹주들이 있던 예복으로 반가에서 예복으로 입기도 하였다. 원삼을 살펴보면 궁중에서의 황후의 황원삼, 비빈의 자적원삼, 반가부녀자들의 녹원삼이 있었는데, 이 녹원삼은 일반인의 신부예복으로써의 착용이 허용되었다³⁷⁾

여자 복식의 구조적 모양은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상의보다 하의에 속한 속옷들이 많이 나타난다. 즉 평상복의 치마 밑에는 하체를 부풀리기 위해 단속곳을 입고 그 밑에 바지, 또 그 밑에 속속곳을 입었고 그 밑에는 자주 빨아 입을 수 있는 다리속곳을 입었다.³⁸⁾ 내외가 심했던 조선 시대에는 외출 시 내외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데 장옷(長衣)과 쓰개치마가 쓰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여자 두식으로는 큰머리, 어여머리, 대수, 얹은머리, 첨지머리, 조짐머리, 새앙머리, 쪽진머리, 땅은머리 등이 있어 지체와 때에 따라 달리 하였다.

장신구로는 노리개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계절에 따라 패용하는 위치나 사용법이 달랐다. 금은 노리개는 주로 추동에 사용하였고, 5월 단오날부터는 옥·비취 노리개를, 8월 추석이 되면 보파류나 짙은

색의 옥석류로 된 노리개를 쌌다.

조선 후기의 남자 복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포(道袍)로, 양반가문의 남자들의 평상예복으로 넓은 소매의 뒷자락이 편복포(便服袍)로서 2겹의 뒷자락이 특징이다. 용도는 사대부의 연거복, 출입 상복이며, 유생의 제복(祭服)으로 유교에서 중시하는 사례복(四禮服)으로 입혀졌다. 도포는 상류층에 국한되어 서민계급은 착용할 수 없었다.

제례복으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도포(道袍)로 바뀜에 따라 복건대신 흑립(黑笠)이나 유건(儒巾)을 주로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의 남자복식에 있어 특징적인 것으로 관모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관모가 흑립(黑笠), 즉 갓을 들 수 있다.

흑립은 평양자·초립 등의 단계를 밟고 마지막에 정착된 조선시대의 대표적 입제(笠制)이다. 것은 흑립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반계급의 전유물이다.

3. 영화 「스캔들」작품 해설 및 의상분석

영화 「스캔들」은 동일한 원작에 충실하게 표현하면서 영화 「위험한 관계」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성격의 등장인물, 다른 공간적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등장인물 조씨주인, 조원, 숙부인 정씨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이들이 성격, 계급 등에 따른 분석은 다음 <표 2>와 같다.

등장인물에 따른 의상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면적으로는 사대부의 혼모양처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요부의 모습으로 간교한 계략과 생활을 살아가는 조씨부인은 대담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맞게 색채에 있어서나 장식에 있어서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아하면서도 애로틱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등장인물과 같이 저고리와 치마로만 구성되지만 넓은 치마의 폭, 설명하게 대비되는 깃의 색, 저고리와 치마의 과감한 배색 등으로 다른 인물보다 과감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즉 몇 개의 저고리와 치마를 장면에 따라 다르게 배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시 최고의 유행인 폭 좁은 소매, 짧은 저고리를 입었다. 보통 열 폭인 치마폭을 열 두 폭으로 키워 몸매를 드러내는 한편, 움직일 때

〈표 2〉 「스캔들」의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

구분 등장인물	성별	나이구분	사회적 지위	성격
조씨부인	여	30대 중반	판서인 남편을 두고 있는 사대부 부인으로 양반계급 에 속한다.	외적으로는 사대부의 현숙한 정실부인이지만, 실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 높다. 사회적 통념에 따르지 않고 남 자를 지배하려는 강한 성격을 가졌다.
조원	남	20대 후반	부호군(副護軍)의 위치로 양반계급에 속한다.	바람둥이로 한량과 같은 인생을 보내며. 우유부단함과 치 밀한 면을 동시에 가진 사회제도의 이탈자이기도 하다.
숙부인 정희연	여	22살	숙부인의 지위를 하사받은 양반계급에 속한다.	정숙함과 도덕심을 삶의 신조로 하는 인물. 사회적 제도 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의외로 자신의 주장인 확실하다.



〈그림 11〉 제례복

〈그림 12〉 보라색
저고리〈그림 13〉 붉은
저고리〈그림 14〉 주황
저고리와 보라색 배자

〈그림 15〉 가체

화려한 동세를 부여했다.

맨 처음 나오는 문중제 장면의 제례복은 조선시대의 반가의 여인들이 예복으로 입던 원삼의 변형으로 영화에서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의상이다. 원래 제례시에 반가의 부인들이 흰색이나 옥색의 의상을 입었다는 자료로 원삼을 흰색으로 하고, 제례복임에도 불구하고 활옷과 같이 화려하게 자수를 놓아 사대부에서도 재력과 권력이 있는 양반가의 부인임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1).

요염한 자태에 어울리게 보라색 저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라색은 색채학에서 욕망을 상징하는 동시에 권력과 허영의 색이면서 가장 자유분방한 색이자 관습에서 벗어난 사람의 색으로 불륜의 색이기도 하다.³⁹⁾ 또한 페미니즘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한 보라색은⁴⁰⁾ 동시대의 여자들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조씨부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이며 옅은 회색·붉은색·짙은 쪽빛의 치마와 배색하여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권인호를 유흐하는 장면에서 입고 나오는 〈그림

13〉의 붉은 저고리는 배경인 붉은 가마와 함께 조씨부인의 숨겨져있는 욕망과 계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배색된 파란색의 치마는 과감한 색의 대비를 이뤄, 붉은색을 강조해준다.

권인호에게 소옥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을 무안을 준 조원에게 보복을 하는 장면에서 짙은 주황색의 저고리에 파랑빛이 도는 남치마와 토끼털로 덧된 보라색 배자입고 나오는데, 조씨부인의 강한 자존심을 표현하듯 어느 의상보다도 강렬하고 선명하게 보여진다(그림 14).

화려하고 유행에 민감한 조씨부인의 두식으로는 호화로운 가체를 빼놓을 수 없다.

두식에 있어서도 고증에 창작을 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씨 부인의 가체는 얹은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그림 15〉과 같이 당시 여자들도 살다보면 틀어올리는 방법에도 여러 멋을 내지 않았겠냐는 추측에 의한 것이다.

다양한 모양의 얹은 머리에 장식된 장신구는 떨잠, 뒷꽃이, 비녀가 쓰였는데 자개, 금, 산호, 옥, 호박, 진주 등 다양하고 화려한 보석들이 사용되었으

며, 노리개와 반지가 항상 옷의 색에 맞춰 착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조를 목숨보다 높이 치는 숙부인의 차림새는 유행과 무관한 넉넉한 품과 길이의 저고리, 법이 금하는 가체를 얹지 않은 쪽 머리, 그리고 열 폭 치마와 같이 단아하고 정숙한 의상이다. 색은 실제 흰색만 입어야 하는 미망인이 쓸 수 없는 색들도 쓰였는데 회색, 갈색, 파랑, 녹색이 감도는 패스텔 톤의 색조가 주로 쓰이나 사랑을 알아 감에 따라 점차 열은 핑크색이나 미망인에게는 금지된 색인 빨강색이 살짝 끼어들기 시작한다. 조원이 선물한 붉은 목도리는 대표적인 예로써 심리 변화에 따라 의상의 색이 확실히 변하는 인물이며, 전반적으로 조씨부인과는 달리 고름의 색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단정한 이미지로 허리가리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나오는 숙부인은 집회에 참석 시에는 <그림 16>같이 남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나온다. 이 같은 검소한 의상은 숙부인의 조용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
남색 저고리



<그림 17>
옅은 색 저고리



<그림 18>
분홍색
저고리



<그림 19>
붉은색의 이용

옅은 패스텔 톤의 회색 저고리는 자주색 깃과 배색되어 갈색, 짙은 녹색 치마와 번갈아 나오는데 대부분은 얇은 사로 만들어졌다. 조원의 조심스런 접근과 유혹을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장면에서 주로 나오며, 곧은 성품과 조용하고 단아한 숙부인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의상으로 보여진다(그림 1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원에 대한 연정이 생겨나면서, 이 같은 심리변화에 따라 저고리 색에 변화를 보여주는데 옅은 분홍색 저고리들과 선명한 붉은 목도리, 마지막 장면의 핏빛 치마가 그 예이다. 옅은 분홍색이 도는 보라색 저고리는 조원에 대해 이모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조원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첫 장면이기에 살짝 난색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18>의 옅은 살구색과 분홍색이 혼합된 저고리는 조원에 대해 깊어지는 연정을 억누르고, 조원으로부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본가로 내려갔을 때 입혀졌다. 저고리의 색을 통해 스스로 인내하지만 이미 사랑으로 고뇌하는 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그림 19>의 흰색의 누빔 저고리는 붉은 목도리와 같이 조원에게 벼림을 받는 장면과 마지막에 강에서 목숨을 끊는 장면, 두번 나오는데 벼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원에게 순결한 마음과 조원만을 사랑하는 일념된 마음을 흰색 특유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조원에 대한 애정의 상징인 붉은 목도리와 잘 어울리면서 부각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유행과는 무관한 소박한 옷차림의 숙부인은 두식이나 장신구에 있어서도 조씨부인과는 대조적으로 단아하게 나타난다. 두식에 있어서는 당시 가체의 사치로 인해 권장하던 쪽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며, 장식에 쓰인 장신구도 비취와 옥을 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정한 쪽머리를 유지하는데 절개를 의미하는 대나무모양으로 각은 백동과 은비녀, 전문장인이 옥을 덩어리째 꺾어 이음새 없이 만든 비녀를 감상할 수 있다⁴¹⁾. 간결한 죽잠도 잘 살펴보면 끝의 섬세한 옥 장식을 볼 수 있다. 노리개 장식으로는 수절하고 있는 숙부인에 맞게 은장도가 달린 것과 단아하고 섬세한 세공이 있는 것을 착용하고



<그림 20> 흰색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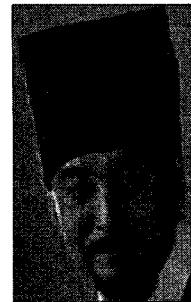
<그림 21> 남색도포



<그림 22> 무예복



<그림 23> 세조대



<그림 24> 흑건

나오는데, 은장도는 조원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만 착용되며 이는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하는 것을 그만 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호군이란 지위를 가진 조원은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한다. 조원의 의상은 여성들의 의상에 비해 단조로 우며, 흰색과 진한 남색의 옷만 입고 나온다. 조선 시대의 사대부의 전형적인 차림인 도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절에 따라, 숙부인에 대한 심리에 따라 색과 재질이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흰 옷은 세상 사람들에 눈에 비치는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치는 바람등이 조원의 옷이다(그림 20). 반면 심리적으로 언뜻언뜻 음영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남색 옷이 등장한다(그림 21). 흰색과 남색은 초반부터 교차하면서 등장하고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남색의 인상이 진해진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단과 사로 만들어져 계절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22>에서 보여지는 의상은 무예를 연마하는 장면에서 입고 나오는 무예복을 들 수 있는데, 이 의상은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예복 및 반비로부터 응용·창작된 옷으로 보여진다. 무예 단련에 편하도록 소매부분을 천으로 두르고, 저고리 위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 날렵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조원의 옷은 다른 남자들의 것과 첫눈에 구분되지 않지만 <그림 23>과 같이 선명한 색의 붉은 세조대에 호박을 조각한 추를 다는가 하면 은입사한 살을 쓴 남색의 비단 부채 같은 액세서리로 드러날

듯 말 듯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 사대부 가문의 양반에게 흑립에 있어서도 대우가 높고, 양태가 넓은 흑립을 쓰고 나오며, 호박으로 꾸며진 것끈으로 세련된 취향을 나타내고 있다. 집안에서 편한 복장일 때는 <그림 24>와 같이 네모난 흑건을 쓰고 있으며, 신은 흰색의 태사혜와 검정색의 혜를 신었다

V.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상 비교분석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는 같은 원작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적 배경은 다르나 등장인물의 지위, 시대적 배경, 상황 등이 비교적 동일하게 전개되어있다. 두 영화의상은 각 시대에 따른 복식의 특징을 고증을 기본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등장인물과 상황 설정에 따라 직물의 색·무늬, 장식과 디자인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두 영화의상 간의 차이를 보면 영화 「위험한 관계」가 더 고증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디자인과 장식뿐 아니라 색과 직물에 있어서도 거의 재현에 가깝게 표현 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영화 「스캔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의상에서 길이와 폭을 조절하여 인물별로 달리 나타내었고, 특히 색을 통해 인물의 심리변화와 성격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인물에 있어 살펴보면 주인공인 메르테이유와 조씨부인은 같은 이미지의 등장인물로 외적으로는 세

〈표 3〉 메르테이유와 조씨부인의 장면에 따른 의상비교

메르테이유	조씨부인	장면	비교
		외적으로는 정숙하고 교양있는 귀부인으로 써 평가받는 모습	메르테이유는 살구색 로브를 입음으로써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귀부인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조씨부인은 차분한 색의 배색 함으로 정숙한 사대부의 정실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발몽·조원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	메르테이유는 흰색의 로브를 입음으로써 고집스러우면서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조씨부인은 보라색 저고리로 독점욕과 강한 자존심을 나타내고 있다.
		발몽·조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함을 깨닫는 장면 및 복수하는 장면	메르테이유는 붉은색 로브로 질투의 마음을 보여주며, 조씨부인 또한 주황색과 보라색의 강한 색 배색으로 질투와 독점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옷을 입기 전의 속옷 차림	메르테이유는 노랑, 하늘색 등의 선명한 색의 코르셋과 빠니에를 입어 가는 허리와 부푼 하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조씨부인은 속이 비치는 얇은 속적삼과 보랏빛 속치마, 긴 허리가리게로 요염한 이미지를 보인다.

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숙한 여인으로, 내적으로는 요부의 성질을 가진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즐기는 강한 성격과 자존심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성격과 심리는 의복에서도 나타나는데, 「위험한 관계」에서는 붉은색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그 예로 들 수 있다. 불같이 강한 성격과 발몽에의 소유욕·투르베에게의 질투 등을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스캔들」에서는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의 저고리가 대담하고 화려한 조씨부인을 나타낸다. 저고리 색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반해 항상 선명한 빨간색

의 좁고 짧은 고름의 한가지로만 쓰이는데 조씨부인의 욕망과 강한 성격, 자존심을 표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영화적인 소품으로 표현된다고 보여진다.

특이한 점으로 숙부인과는 달리 장옷이 등장하지 않는lye, 걸어서 외출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장옷을 의도적으로 착용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듈다.

또 유행에 민감한 감각의 소유자인 두 인물의 의상은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과 장신구들이 보여진다.

남자 주인공인 발몽과 조원은 기본적인 성격에

〈표 4〉 발몽과 조원, 당스니와 권인호의 장면에 따른 의상비교

발 몽	조 원	장 면	비 교
		평상시의 의상	발몽은 화려하고 세련된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조원은 단정하고 풍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집안에서의 장면	발몽은 주로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원은 저고리와 바지의 편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냥 및 무예시	발몽이 사냥 나갈 때 입은 프락은 당시 실용적인 의상으로서 붉은색과 카키색의 강한 색채 대비를 보여주며, 조원은 무예 연습 시, 반비의 변형된 의상을 입고 팔목에 천을 감아 움직임을 편하게 함으로써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으면서 조정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이 발몽이 절대 악적인 냉혹한 바람둥이라면, 조원은 양반의 풍류를 알고, 자신만의 음영이 있는 능청맞고도 다중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는 철저히 고증에 따르면서도 발몽은 화려하고 세련되며, 조원은 단정하면서도 작은 부분에서 세심함을 보여주는 차이를 보여준다.

투르베와 숙부인 정희연은 정숙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나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뚜렷한 인물로 의상에 있어 단조롭고 차분한 색이 쓰였다. 숙부인의 의상에 있어서 사랑을 느껴가면서 점차 분홍색과 붉은색의 사용이 보이며, 미망인에게는 쓰일 수

없는 색의 이용과 같이 「스캔들」에서는 고증보다는 영화적 시각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3, 4〉에 나타나 있으며, 〈표 5〉에서 정리하였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사대부 부인의 그림이 거의 없어, 〈표 5〉에서 조씨부인의 사진과 비교하기 위한 18세기 조선의 그림은 당시 기녀의 복식이 유행되어 사대부의 부인들도 그 유행에 따르기도 했다는 자료에 따라, 당시의 대표적인 복식을 입은 기녀의 그림으로 하였다.

〈표 5〉 여자 등장인물의 의상 비교 분석

	영화의상	18세기 복식	영화의상과 시대 복식 비교	영화 「위험한 관계」와 영화 「스캔들」의상 비교
메르테이유			로브 아라 프랑세즈를 기본으로 로코코 특유의 복식 및 장식과 헤어 등이 고증에 철저히 따라졌다.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패션 리더로써의 모습이 잘 나타났다.	두 인물은 강한 자존심과 성격을 지닌 인물로 의상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화려한 의상 디자인과 색을 통해 유행에 민감한 세련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헤어와 장신구에 있어도 호화로우면서도 세련된 것을 선택하였다. 메르테이유가 좀 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라면, 조씨부인은 요염한 이미지가 섞여있어 의상에서도 보다 선명하고 원색적인 색이 쓰였다. 특히 보라색은 조씨부인의 높은 자존심과 성격, 지배욕, 독점욕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조씨부인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기본으로 당코깃과 짧은 고름 등이 고증을 통해 시대복식과 동일하게 나타나나. 영화의상에선 18세기의 것보다 저고리 길이가 좀 더 길다던지, 색에 있어 유연한 사고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했다.	두 인물은 단정하면서 조용한 성격과 함께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뚜렷한 인물들로 의상에 있어서도 단정하고 차분한 색이 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투르베			로브 아라 프랑세즈, 로브 아라 까라코, 로브 아라 랑글레에즈 등 다양한 의상이 선보여지며, 고증에 따라 잘 표현되었다. 영화에선 로코코 특유의 화려한 직물 무늬보다는 인물의 성격을 고려해 직선적인 무늬를 많이 썼다. 팻슈를 이용하는 것이 보인다.	유행과는 무관하게 단조로운 의상이 주를 이루며, 정숙함의 표현에 있어 투르베는 팻슈의 작용을, 숙부인은 허리맡기기 짧고 저고리 길이가 넉넉하게 하여 표현한 공통점이 보인다.
숙부인			18세기 복식을 잘 표현했으나 인물의 조용하고 단아한 성격을 고려해 표현되었다. 당시 조선에서 미망인은 흰색만이 사용 가능했으나 영화에서는 미망인은 쓸 수 없는 색을 사용하며, 인물의 심리표현을 나타냈다.	사랑에 빠지면서 투르베는 주위의 눈을 의식하듯 조금은 밀폐되는 의상으로, 숙부인은 심리변화에 따라 붉은 계열의 색으로 변해가는 차이가 있었다.
발몽			18세기 상류층에서 유행한 아비 아라 프랑세즈와 트리콘 햇의 모습이 영화에서 잘 표현되며 다양한 의상들이 보여진다. 자수 및 장식에 있어서도 고증을 철저히 따랐으며, 가발에 가루를 뿌리는 것 또한 잘 재현하여 보여준다.	두 인물은 바람둥이란 설정은 같으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발몽은 차갑고, 냉혹한 바람둥이라면, 조원은 양반의 풍류를 알고, 능청맞은 부분이 있는 인물이다. 이에 의상에 있어서도 발몽은 세련되고, 화려하게 표현되었다면, 조원은 단정하면서도 작은 부분에서 섬세함을 보여주는 풍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원에 있어서는 무술을 연마할 때 입은 옷과 같이 의상의 변형이 보여진다.
조원			양태가 넓고 대우가 높은 흑립, 소매가 큰 도포는 당시의 양반들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했으며, 색에 있어 남색을 이용함으로 미색이 주류를 이루던 조선과 차이점을 보인다.	

VI.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하여 리메이크한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 -남녀상열지사」에 나타난 영화의상을 등장인물별로 분석하고, 복식사적 측면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작품에 내재된 복식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두 영화간의 의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영화에서 나타나는 영화의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에서의 영화의상은 극의 스토리 전개를 돋는 중요한 요소이며, 극중 인물의 성격과 개성,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해 주는 이미지 전달 역할과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극의 주제와 분위기 표현의 기능, 영화 속의 패션으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영화의 장르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이 부각되며, 이러한 특징들은 영화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둘째, 두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8세기는 사회문화적으로 부흥기였으며, 이에 따라 복식도 발전하였다. 18세기의 프랑스는 로코코라는 예술양식의 영향으로 남녀 복식에 있어 가장 화려한 디자인과 장식을 보였다. 여자 복식의 종류로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브 아 라 까라코, 로브 아 라 랑글레에즈, 로브 아 라 뿔로네에즈 등이 있으며 복식들은 화려하고 매우 장식적이었다. 남자 복식으로는 아비아 라 프랑세즈, 프락, 르탱고뜨 등이 있으며, 여자 복식에 맞춰 코트에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는 등 호화로움의 절정이었다. 이와 같은 복식의 디자인과 특징은 영화 「위험한 관계」에서 볼 수 있으며 로코코시대에 발전된 파스텔 계열의 색들과 실크직물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고증에 비교적 가까운 의상 디자인을 보여주며, 장식 및 장신구, 헤어에 이르기까지 고증을 기본으로 로코코 스타일을 잘 재현했으며, 색상에 있어서도 로코코 시대의 유행되었던 색상을 나타냈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화려한 디자인과 직물, 혹은 단순하면서도 차분한 디자인의 의상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후기인 영·정조시대 역시 정치가 안정

되고 사회문화적면에서 부흥되는 시기로 복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변동으로 인해 복식은 문란해졌으며, 특히 여자 복식에 있어 저고리가 짧아지고 치마가 풍성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영화 「스캔들」의 조씨부인의 의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영화에서는 고증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등장인물의 성격과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길이·변화와 색의 다양한 선택, 동시대 의상의 디자인 변형 등 「위험한 관계」보다는 「스캔들」에서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부여한 의상들이 더 많이 선보여졌다.

셋째, 극의 흐름에 따른 등장인물의 복식을 분석한 결과 주요 등장인물인 메르테이유·조씨부인, 발몽·조원, 투르베·숙부인 정씨는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 색의 변화와 표현이 나타났으며, 고증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부여하여 디자인된 의상이 선보여졌다. 두 영화의상 모두에서 화려한 디자인과 장식을 보여졌고, 인물의 성격에 따른 디자인의 표현이 잘 나타났다. 의상 뿐 아니라 헤어, 장신구, 입히는 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준비와 표현을 보여주며, 상류층의 의상을 적절한 화려함과 기품으로 조합스럽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넷째, 같은 원작을 기본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었지만, 감독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달라졌고, 이에 영화의상으로써의 표현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또한 디자이너가 고증과 창작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시대극으로써의 표현과 전달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위험한 관계」는 「스캔들」보다 고증에 더욱 힘을 기울여 디자인되어, 18세기 프랑스의 상류계층의 의상을 잘 나타냄으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상류사회의 화려함과 부도덕적인 일면이 부각되어졌다. 반면 「스캔들」은 고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른 디자인 변용이 더 많았으며, 다소 고증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색을 이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영화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영화에 나타나는 영화의상은 단순한 의복의 역할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극중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주며,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 성격과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화에 있어서 의상은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표현 수단으로써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미의식의 표현 이므로 영화의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당시 복식사 연구에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영화에서의 잘못된 고증은 관객에게 극의 배경과 극중인물을 왜곡하거나 과장시킬 수 있음으로 영화의상은 관객에게 영화 자체의 이해를 돋기 위해 현실성 있는 정확한 고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증에만 비중을 두면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 영화의 의도, 극적 재미, 영화 속의 시각적 효과, 영상미 등이 부족하게 되어 영화의상의 의미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증과 창작의 비중을 조절하여 미적 감각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황왕수 (1976). 영화 제작 기법. 서울: 시청각 교육사. p. 5.
- 2) 김연 (1990). 영화 사전: 이론과 형식. 서울: 한국영화인 협회. p. 243.
- 3) 이경기 (1993). 아카데미 영화제(상).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276.
- 4) 정홍숙 · 박형애 (1998).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신와즈리(chinoiserie)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논총, 11, p. 157.
- 5) 차하순 (2003). 새로이 쓴 서양사 총론 2. 탐구당. p. 370.
- 6) 안유리 (2004).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7) Eduard Fuchs, 아기웅 · 박종만 역 (1977). 풍속의 역사III-색의 시대. 까치. pp. 26-29.
- 8) 차하순. 앞의 책, pp. 726-727.
- 9) Michel Vovelle, 최갑식 역 (1987). 왕정의 물락과 프랑스 혁명. 일월서각. p. 29.
- 10) 김월계 (2003). 복식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0.
- 11) 차하순. 위의 책, p. 725.
- 12) 김정 (2002).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의 구성에 관한 연구 -로브의 패턴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13)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40.
- 14) 김월계. 위의 책, p. 130.
- 15) 허갑설 (1998). 복장문화와 복장사. 도서출판 이즘. p. 82.
- 16) 김명애 (1992).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복식사 문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6-78.
- 17) 김월계. 앞의 논문, p. 140.
- 18) 로브 아 라 까라코의 위 재킷을 뼈에로 재킷(pierrot jacket)이라고 한다.
- 19) 전은선. 앞의 논문, p. 108.
- 20) 신상옥 (1998). 서양복식사. 수학사. p. 221.
- 21) 조민수 (1991). 서양 남성 Jaket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6.
- 22) Yarwood, Dorren (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T. Batsford Ltd. p. 56.
- 23) 영어로는 라이딩 코트(riding coat)라고 한다.
- 24) 푸르푸앵: 15-17세기에 걸쳐 남자들이 입었던 상의로 허리까지 맞고 허리선에서 폐플럼이 달리기도 했다. 차차 소매가 짧아지다 없어지고 후에 베스트로 바뀐다. 영국에선 더블릿이라 불린다.
- 25) Bradley, Carrollyn G. (1994). *West world costume*. NY: Appleton-Century-Crofts Inc. p. 229.
- 26) 조진애 (2002). 그림에서 표현된 서양복식. p. 154.
- 27) 에바 헬러, 이영희 옮김 (2002). 색의 유혹. 예담. pp. 199-221.
- 28) 에바 헬러, 이영희 옮김. 앞의 책, pp. 83-85.
- 29) 다호 편집실 편. 한국사 연표. 서울: 다호미디어. p. 336.
- 30) 이경자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열화당. p. 15.
- 31) 임재명 (1990). 조선후기 복식발달의 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1.
- 32) 김월계. 위의 논문, pp. 23-27.
- 33) 이경자. 앞의 논문, p. 18.
- 34) 이경자. 위의 논문, p. 18.
- 35) 김월계. 위의 논문, p. 21.
- 36)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학. 세화당. pp. 148-152.
- 37) 유희경 (2001). 한국복식 문화사 개정판. 교문사. p. 281.
- 38) 백영자, 최해율 (2004). 한국복식의 역사. pp. 272-275.
- 39) 에바 헬러지음, 이영희 옮김. 위의 책, pp. 97-120.
- 40) 에바 헬러지음, 이영희 옮김. 위의 책, pp. 120-121.
- 41) 씨네 21- 검색일 2004. 11. 24. 자료출처 <http://www.cine21.co.kr>